

# SSG 최정 “그라운드에서 쓰러진다는 생각으로”

## 햄스트링 통증 여파로 정규시즌 부침 겪어... 준PO 2·3차전 안타로 부활 기미

프로야구 SSG 랜더스의 간판 타자 최정은 올 시즌 내내 햄스트링(허벅지 뒤 근육) 부상에 시달렸다.

부상 여파로 정규시즌 동안 고전하는 모습을 보인 최정은 가을야구 무대에서조차 주축 타자에게 기대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지만, 다치더라도 그라운드 위에서 다치겠다는 생각으로 온 힘을 쏟고 있다.

최정은 “올 시즌 잘했으면 자신감을 가지고 가을야구에 임했을텐데 계속 해됐다. 최악의 시즌이었다”며 “그 느낌이 포스트 시즌에도 이어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시즌 개막 직전부터 꼬였다. 최정은 3월17일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KIA 타이거즈와의 시범경기를 앞두고 수비 훈련을 하다가 오른쪽 햄스트링(허벅지 뒤 근육)에 불편함을 느꼈다.

검사 결과 햄스트링 부분 손상 진단이 나왔고, 3월22일 개막을 1군에서 맞이하지 못했다.

한 달 넘게 치료와 재활에 매달린 최정은 5월2일야 1군에 합류했다.

복귀 후에도 부상 여파에서 벗어나지 못한 최정은 올해 정규시즌에 타율 0.244(340타수 83안타), 23홈런 63타점에 OPS(출루율+장타율) 0.842에 머물렀다.

5월13일 KBO리그 최초로 통산 500홈런 고지를 밟은 최정은 10년 연속 20홈런도 달성했지만, 기대에는 밀도는 성적을 냈다.

포스트시즌에도 타격감이 썩 좋지는 못하다.

최정은 지난 9일 벌어진 삼성 라이온즈와의 준플레이오프(준PO·5전3선승제) 1차전에서 2타수 무안타에 불빛 2개를 고르는데 그쳤다.

준PO 2차전에서는 SSG가 1-0으로 앞선 3회말 2사 2루에서 좌전 적시타를 쳤지만 빗맞은 안타였다.

최정은 준PO 3차전에서는 4회초 선두 타자로 나서 좌월 2루타를 날렸지만, 8회에는 병살타를 치며 아쉬움을 삼켰다.

최정은 “정규시즌에 한창 해낼 때보다는 타격감이 나은 것 같다. 그러나 포스트 시즌이 되니 상대 투수들이 쉽게 승부하지 않는 느낌”이라고 자평했다.

정규시즌에 아쉬운 성적을 거뒀지만, 최정은 가을야구 무대에서 만회하겠다는 생각이 하지 않는다. 부담감을 최대한 내려놓기 위해서다.

최정은 “만회하려고 하면 더 안 된다. 포스트시즌은 보너스 게임이라 생각하고 뛰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규시즌 내내 그를 괴롭혔던 햄스트링 부상은 약간의 불편함을 남겼다.

최정은 “뒀 때 약간의 자극은 있고, 불안한 느낌이 있다”면서도 “하지만 다치더라도 야구장에서 뛰다가 다치자는 생각으로 경기하다보니 불편함이 무뎠다. 이제 약간 자극이 와도 무시한다”고 전했다.

올해 이전까지 최정은 포스트시즌 76경



기에 출전해 타율 0.276, 13홈런 43타점을 거뒀다.

홈런 1개를 더 치면 이승엽, 박병호(삼성)와 포스트시즌 통산 홈런 공동 1위로 올라선다.

아직 홈런을 치지 못한 최정이 기록을

써낸다면 SSG도 벼랑 끝에서 탈출할 수 있다.

최정은 “아직 내가 중심 타선에서 뛰고 있고, 김광현도 선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둘 모두 잘해야 한다”고 다짐했다.

/뉴스



## 배드민턴 국가대표 상비군, 영광군에서 2차 전지훈련 돌입 배드민턴 동호인 위한 재능 기부 레슨까지

영광군(군수 장세일)은 지난 8월 7일부터 16일까지 체류했던 대한민국 배드민턴 국가대표 상비군 선수단(감독 고영구)이 2차 훈련을 위해 스포터움 국민체육센터를 다시 찾아 전지훈련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10월 10일부터 19일까지 10일간 진행되는 이번 전지훈련에는 지도자 5명, 선수 24명, 트레이너 1명 등 총 30명이 참가했으며, 훈련 일정은 체력 훈련과 실전 모의 경기뿐 아니라 심리적 준비, 경기 경험 축적, 훈련 피드백, 개인별 목표 설정 등을 반영하여 선수들의 국제대회 출전과 국가대표 선발에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특히, 배드민턴 국가대표 상비군 선수단이 군 배드민턴 동호인의 기량 향상과 관내 배드민턴 종목 활성화를 위

한 레슨을 진행했으며, 국가대표급 선수들의 원포인트 레슨을 받는 흔치 않은 기회에 동호인들의 큰 호평을 받고 있다.

영광군은 이번 전지훈련 유치를 통해 약 30백만 원의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에 배드민턴 전지훈련을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추가적인 대회 유치를 위한 긍정적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군 관계자는 “1차 훈련에서의 선수단 만족도가 높아 이번 2차 훈련까지 진행할 수 있었고, 이는 높아진 영광군 스포츠산업의 위상을 실감하게 하는 점”이라며, “국가대표선수단과의 장기적인 교류에 노력하여 향후 전지훈련과 대회 유치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라고 말했다.

영광/이현식 기자

## 광주은행, 목포시청 여자하키팀 공식 후원 협약 체결

광주은행(은행장 고병일)은 지난 13일 목포시청에서 열린 협약식에서 고병일 광주은행장과 조석훈 목포시장 권한대행(부시장), 고영배 관공문화교육국장(직장운동경기부 단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목포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여자하키팀 공식 후원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광주은행은 2026년부터 2028년까지 매년 3천만 원씩 총 9천만 원을 목포시청 여자하키팀에 지정 기탁하기로 했다.

후원금은 목포시체육회를 통해 선수단의 훈련용품 구입 등 팀 운영비로 사용될 예정이다.

광주은행은 지역 대표 금융기관으로서 지역사회공헌활동과 문화·체육 지원에 꾸준히 앞장서 왔으며, 이번 후원을 통해

지역 스포츠 발전은 물론 시민과 함께 성장하는 지역은행으로서의 역할을 한층 강화하게 됐다.

고병일 광주은행장은 “목포시청 여자하키팀은 목포를 대표하는 훌륭한 팀으로, 꾸준한 노력과 뛰어난 성과로 시민들에게 큰 감동을 주고 있다”며 “광주은행은 앞으로도 지역 체육의 든든한 후원자로서, 선수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최고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고영배 목포시 관공문화교육국장은 “광주은행의 적극적인 후원은 전남 유일의 여자하키팀이 더욱 안정적인 여건 속에서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든든한 힘이 될 것”이라며 감사를 전했다.

/김명수 기자

## PO 진출까지 단 1승... 삼성, 구자욱·김성윤 부활이 반갑다

프로야구 포스트시즌(PS)에서 부진을 겪었던 구자욱과 김성윤(이상 삼성 라이온즈)이 준플레이오프(준PO·5전3선승제) 3차전에서 맹타를 휘두르며 반등에 성공했다. 플레이오프(PO·5전3선승제) 진출에 단 1승만을 남겨둔 삼성은 이들의 부활이 반갑다.

삼성의 간판타자 구자욱은 13일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열린 2025 신한 솔뱅크 KBO 포스트시즌 준PO 3차전 SSG 랜더스와의 경기에서 2번 지명타자로 선발 출전해 4타수 2안타 1타점으로 활약했다.

팀이 2-0으로 앞선 3회말 2사 2루에서 구자욱은 SSG 선발 드루 앤더슨의 커브를

WC 이어 준PO서 주춤했던 구자욱, 3차전에서 4타수 2안타 1타점 맹타

준PO 1·2차전서 침묵했던 김성윤 역시 3차전에서 2안타 2타점 활약

걸어 올려 1타점 2루타를 터트렸다.

7회말에는 SSG 좌완 불펜 김택형을 상대로 중전 안타를 뽑아내면서 올해 포스트시즌에서 첫 멀티히트(한 경기 2안타 이상)를 작성했다.

NC 다이노스와 와일드카드 결정 1차전부터 준PO 1차전까지 3경기 연속 무안타 침묵에 빠졌던 구자욱은 2차전에서 2루타를 치며 부활 조짐을 보였고, 3차전에서 멀티히트로 부진의 터널에서 완전히 벗어

났다. 준PO 3차전에서 2번 타자 우익수로 선발 출장한 김성윤은 4타수 2안타 2타점 2득점으로 펄펄 날며 나쁜 흐름을 끊어냈다.

0-0 동점이던 3회말 2사 1, 3루에서 김성윤은 내야 안타를 쳐 3루 주자 강민호를 홈으로 불러들였고, 5회말에는 SSG 필승조 투수 이로운의 조구 슬라이더를 공략해 좌중간을 가르는 1타점 2루타를 폭발

했다. 올해 정규시즌에서 고강도 타격감을 자랑하며 타율 0.331을 기록한 김성윤은 와일드카드 결정전에서 6타수 1안타로 주춤했고, 준PO 1차전과 2차전에서 각각 3타수 무안타에 그쳤다.

하지만 준PO 3차전에서 김성윤 또한 장타를 포함해 안타 2개를 쳐내며 부진의 늪에서 탈출했다.

김성윤은 경기 후 “코치님이 ‘보더라도 걸치는 공들은 잊어버리지’라고 말씀해주셨다. 상대 실투에 집중해서 잘 맞은 타구가 나왔고, 운 좋게 인플레이드 때서 좋은 결과로 이어졌다”고 돌아봤다.

구자욱과 김성윤의 뜨거운 타격에 힘입어 삼성은 준PO 3차전을 5-3 승리로 장식했다.

/뉴스

마법의 국향랜드로 초대합니다

# 국향 대전

HAM PYEONG

2025 대한민국 국향대전

10.24.(금) - 11.09.(일)

함평엑스포공원